

# 쌀값 · 원료곡 수급 현안 논의 · 방안 모색

### 전북농협, 미국종합처리장운영 전북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RPC 협력 통해 농가와 상생 강화"

전북농협이 쌀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미국종합처리장(RPC)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열고 농가 경영 안정과 양곡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7일 농협전북본부 회의실에서 미국종합처리장운영 전북협의회(회장 전봉구) 옥구농협 조합장)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전봉구 협의회장을 비롯해 도내 회원 조합장 등 23명이 참석해 최근 쌀 산업 동향과 RPC 운영 현안을 공유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 및 결산 승인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 △RPC 운영 방향 및 쌀 산업 발전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쌀값 흐름과 원료곡 수급 상황, 농가 생산비 증가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최근 쌀값은 일정 부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비료·유류·농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전북농협은 7일 농협전북본부 회의실에서 미국종합처리장운영 전북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원료곡 확보 경쟁 심화와 소비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도 RPC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RPC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원료곡 수급과 품질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전북 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고품질 쌀 생산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방안에도 논의했다.

전봉구 협의회장은 "쌀값은 다소 저지세를 보이고 있으나 원료곡 수급 불안과 국제 정세 영향으로 농가 생산비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RPC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농업인과 RPC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대응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 경영 안정 없이는 지역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할 수 없다"며 "전북 쌀 산업 발전을 위해 회원 조합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어

려운 사업 환경 속에서도 양곡사업 발전과 농업인 삶의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합장들께 감사드린다"며 "전북농협도 안정적인 양곡사업 환경 조성 과 RPC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전북 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양곡 유통 체계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상근 기자

## '지속가능경영' 성과 인정

### 전북신용보증재단, ESG 경영 수준 진단 '최고 등급'

전북신용보증재단이 ESG 경영 수준 진단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하며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인증(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한 ESG 경영 수준 진단에서 최고 등급인 'Level 3'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ESG 경영 수준 진단은 정보공시를 비롯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ESG 전 분야의 경영체계를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전북신보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과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인정받아 최고 수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추진 중인 '사회적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금융복지 상담 및 맞춤형 금융교육 사업이 지역사회 공헌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비대면 보증 확대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과 ESG 녹색기업 특별보증 운영, 성실실패자 재기지원, 금융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등 정책금융과 연계한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도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전북신보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와 유관기관, 지역 소기업·소상공인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ESG 기반의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 전북정경원-국민연금공단, 지역상생 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국민연금공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6일 국민연금공단과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생생장터를 중심으로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의 지역 우수 농특산물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역 제품 우선구매 문화 확산을 위해 내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상생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북생생장터 회원가입과 이용 활성화, 우수 농



특산물 홍보, 명절 선물세트 및 기념품 구매 시 지역 상품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지원단과 상담회를 연계하고, 기관 수요 물품과 기업 리스트를 사전 매칭하는 등 실질적인 구매 연계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 논의

### 제15회 바이오지식포럼 개최 전북 바이오산업 성장 전략 모색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 의료·바이오산업의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6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제15회 바이오지식포럼(문샷)'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과 바이오진흥원이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출생 이후 생명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생명산업 육성 방향을 모색하고 최신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도내 식품기업과 혁신기관 관계자, 전북자치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에는 나훈호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장이 연사로 나서 'Digital Healthcare 2026 : Age of Generative AI'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나 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생성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지난 6일 '제15회 바이오지식포럼(문샷)'을 개최했다.

형 AI 시대 개막이라는 의료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며, 생성형 AI가 의료 현장의 구조적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와 의료진 간 대화의 실시간 기록 및 전자의무기록 자동 입력, 보험 이의신청 초안 작성, 환자 교육 자료 생성, 의무기록 요약 등 의료행위 자동화 사례를 소개하며 의료진의 업무 부담 완화와 의료기관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또 환자 증상 분류와 원격 모니터링, 자동응답 시스템 등 AI 기반 환자 관리 서비스와 의료·보험·요양을 연

계한 디지털 헬스케어 모델의 확장 가능성도 함께 논의됐다.

포럼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서비스 중요성도 강조했다. 생활 밀착형 건강관리 콘텐츠와 원격 건강관리, 임상 의사결정 보조 시스템 등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향후 의료산업의 핵심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강연 이후 참석자들은 전북 생명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접목 가능성, 바이오산업의 미래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오상근 기자

###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2차 참여 기업 추가 모집

전북테크노파크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기업 지원에 나선다.

전북테크노파크는 '2026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2차 참여 기업을 오는 27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순창군·남원시·장수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연고 산업을 기반으로 한 유망 기업 육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제·순창·남원·장수 지역에 본사와 지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가운데 1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이다.

지역별 중점 산업은 △김제시 특장차 △순창군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농생명식품 △남원시 그린바이오 △장수군 레드푸드 및 스마트농업 분야다.

선정 기업에는 제품개발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및 인증, 기술지도, 공정 개선, 마케팅 등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기업당 연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오상근 기자

## 중소기업 장기근속 무주택자에 주택 특별공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를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를 통해 '익산 펠리피어' 특별공급 추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별공급 대상인 '익산 펠리피어'는 익산시 팔봉동 180坪에 조성될 예정으로, 총 16세대가 확정 추천되며 예비추천 16세대도 함께 선정된다. 주택형별로는 △84A형 3세대 △84B

형 9세대 △84C형 4세대가 배정됐다. 확정추천자는 청약 후 별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당첨자로 선정되며, 예비추천자는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 당첨 기회를 얻게 된다.

신청 자격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가운데 과거 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